

2014년 동국대학교 모의 논술고사 문제 해설(인문계 1)

I. 출제의도

[문제 1]

수험생들이 제시문(가)의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세금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개념과 발생 원인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를 통해 분석력과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제시문(가)에서 제시한 경제적 순손실의 개념을 역사적 사례인 '영국의 창문세'에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를 통해 응용력과 창의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문제 2]

제시문(다)의 설명을 바탕으로 제시문(라)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간의 조세형평성을 보완하는 관계를 유추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를 통해 추리력과 분석력 및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문제 3]

제시문들은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수록된 '화폐'의 기능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에서 화폐의 기능이 단순히 교환, 가치저장, 가치척도로서 머물기 보다는 자기증식하며 또한 인간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장치로 변화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 문제를 수월하게 풀기 위해서는 수험생의 독해력, 분석력 및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로 된다.

[문제 4]

본 문제는 사회 문제의 해결 능력을 검증하고자 함이다. 현대 사회의 노인 문제는 더 이상 가정에서 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노인 복지 정책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 복지 문제는 노인들에게 단지 재정적인 차원에서의 도움을 준다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현재의 노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미봉책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인 복지 문제 정책과 사회 인식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II. 문제해설

[문제 1] (가)의 예를 이용하여 세금이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그리고 (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영국의 창문세는 어떠한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 문제해설 : 세금 부과가 왜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경우 시장이 희소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세금 부과로 소비자가 내야 하는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한다면, 소비자는 소비량을 줄이고자 할 것이고 생산자는 공급량을 줄이고자 할 것이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러한 경제적 유인에 반응함에 따라 거래량이 감소하고 시장 규모가 최적 수준보다 작아진다. 따라서 세금 부과는 경제 주체들의 유인 구조를 바꾸어 시장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만든다.

제시문(나)의 영국에서 도입한 창문세는 기존의 난로세가 갖고 있는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세금으로 도입되었다. 즉 난로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가정을 방문하여야 가능하지만 창문세의 경우는 굳이 집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창문의 개수를 파악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세금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현대의 소득세 또는 재산세와 일맥상통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난로세로부터 창문세로의 전환은 증세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많은 영국사람들은 증가된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에 자신 집의 창문을 폐쇄함으로써 세금을 회피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 그 결과 영국정부는 예상했던 세금을 걷지 못하게 되고, 영국 국민들은 창문 없는 집에서 살게 됨에 따라 삶의 질의 하락이라는 커다란 부담을 지불하게 된다.

이는 제시문(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세금부과로 인해 영국정부와 영국국민 모두가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순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 2] (다)의 형평성에 대한 설명을 전제로 (라)의 부가가치세의 문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별소비세의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 문제해설 : 경제적 형평성을 지향하는 조세 형평성의 기준은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이라 할 수 있다. 수평적 형평성은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동일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기준이다. 그리고 수직적 형평성은 경제적 능력이 더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기준이다. 이러한 형평성의 관점에서 부가가치세는 소득 기준으로 역진적인 성격의 조세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소득은 소비에 비례하여 증가하기는 하지만 소득에 대한 소비의 한계증가율은 체감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즉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공급가액의 10%를 부담하는 조세이므로 소비가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지만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는 감소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부자에 비해 가난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하는 세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개별소비세는 부자가 많이 소비하는 사치성 재화 등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

는 세금이다. 따라서 부자일수록 더 큰 세금을 부담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그 결과 부가가치세가 갖는 소득의 역진성을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소비세의 이러한 기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치성 소비재에 해당하는 재화와 용역을 부자가 소비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들 간에도 소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누진세가 아니므로 소득의 역진성 해소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 3] 제시문 [가]는 화폐의 개념과 세 가지 기능을 정리한 글이다. 현대사회 시장경제에서 이러한 기능들이 왜곡되어 나타나는데, 제시문 [나], [다], [라]가 다루는 화폐의 문제는 무엇인지 각기 설명하고, 또한 이러한 비판의 공통된 주제의식은 무엇인지 논술하시오.

- 문제해설 : 제시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제시문 가 : 돈의 개념과 기능에 관한 고등학교 교과설 글이다. 돈은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파는 데 사용하는 자산이며, 그 기능은 교환, 가치저장, 가치척도이다.

제시문 나 : 가치척도 기능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근대화는 합리화 과정이며, 모든 삶의 영역이 계산공간이 되고, 상품화된다는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과정은 화폐의 가치척도 기능의 확장에서 비롯된다.

제시문 다 : 교환기능의 문제를 다룬다. 모든 재화를 시장에서 교환할 수 없음에도 특정도덕적 시민적 재화가 시장에서 교환되게 함으로써 가치의 감소와 변질된다는 비판이다. 비공식적 교환, 상호 의무, 이타주의나 사랑, 봉사정신이나 의무감이 그 예이다.

제시문 라 : 가치저장 기능의 왜곡을 다룬다. 화폐란 단지 가치를 저장하기 보다는 가치가 스스로 증식된다. 금융자본주의의 투기나 재테크가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우수한 답안은

제시문 나에서 가치척도, 제시문 다에서 교환기능, 제시문 라에서 가치저장 기능을 각각 비판적으로 접근하여, 계산공간의 확장 문제, 가치의 감소 문제, 금융자본주의의 '돈 놓고 돈먹기'로 인한 불평등 문제를 설명하고, 공통점으로서 삶의 영역 전반에 화폐 논리가 만연한 것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 된다.

[문제 4]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문제점을 제시문 [마]에서 찾아 서술하시오.

- 문제해설 : 제시문 [가]~[다]는 노인문제의 현 상태를 가정과 사회뿐만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TV 드라마에서조차도 노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노인 문제는 '도와준다는' 개념의 복지로 접근하고 있음의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인들의 자존감을 위해서는 사회에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인들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